

구세주가 논하는 이긴자 되는 방법

“이제그대로”의 참뜻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때 큰소리로 찬송 부르고 손뼉도 큰소리로 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 안하면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찬송소리가 모기 소리 같고 손뼉 치는 소리도 타닥타닥 소리 나게 치는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곳은 나와 더불어 투쟁하는 곳이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손뼉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큰소리로 찬송을 해야 은혜가 연결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음성자체가 마귀를 죽이는 음성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눈으로 마귀를 박멸소탕 하지만 음성자체도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세주를 닮으려면 구세주와 같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들을 때에는 말씀을 다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한 말인 것입니다. 완전한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책을 쓸 때에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쓰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세상 책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완성자의 입에서 완성의 말이 나오지, 완성자의 입에서 부족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이제그대로’라는 말이 다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라는 건 원래상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어조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그대로’를 빼놓고 쓰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그대로가 들어가야 완성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20년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말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세상 책을 보고 우리 제단에 나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책을 써야지, 가감해서 쓰면 그 책은 생명이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이 사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고로 말씀 그대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이 바로 이 제단의 경전인 것입니다.

구세주의 말씀이 곧 진리

여러분들이 새식구에게 격암유록과 다른 예언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만 그 예언서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주인공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 예언이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공이 나온 다음에는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면서 원수 마귀가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 예언서의 말씀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식구를 교육할 때에 틀림없는 구세주요, 틀림없는 정도령이요, 틀림없는 생미복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 예언서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세주 나오기 전에는 예언서가 100% 맞기 때문이지만 구세주가 나온 다음부터는 적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와야, 주인공이 나와야 예언서도 풀리는 것이지, 주인공을 몰라가지고는 예언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격암유록이 풀어지고 또한 불경과 성경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진리의 근본을 말씀하시는 고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중 진리가 바로 구세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책으로 엮으라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었죠? 그런데 우리 제단에 이 사람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제단에는 마



구세주 조희성님

귀새끼들만 있다. 이 소린인 것입니다.

구세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천지개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도 구세주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밤통 중에 밤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품의 없앤다, 여름잠마 못 지게 한다, 태풍 못 불어오게 한다, 전쟁 못 일어나게 한다, 풍년 들게 한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했죠? 그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이 사람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제단의 경전은 이 사람의 말씀이 경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이 자유율법이고 이 사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생활 수 있는 방법론인 것입니다. 이 사람 말씀을 세계 만민이 듣고, 이 사람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면 다 무릎을 치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이 사람 말씀에 가미해서 책을 쓰면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세상사람 같으면 어떻게 성경의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알면 마귀가 방해할 텐데 어떻게 성경이나 불경이나 격암유록도 역사 마귀가 모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나 그 말씀을 푸는 것이지,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세주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건 바로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인 고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방법을 자세히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지, 자기의 생각을 첨부해서 자기 멋대로 생활하면 절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흉년이 삼년 동안 들고 2년 동안 괴질이 돌게 되는데, 그때에 잘못 산 사람들은 전부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집이 있어 가지고 말씀대로 살


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죽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목매어 외치면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죽지 않게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데도 이것을 뺏아 속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 이제는 말할 힘도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셨나요? 그 말씀대로 1년간 실천하면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면 우리 제단에 이긴자가 수백 명이 있었지만 이긴자가 없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긴자 되는 방법을 논했죠? 영생하는 방법, 하나님 되는

방법, 또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며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예배 보러 들어오면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까마귀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오염되어 가지고 마귀가 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한테 오염되면 얼굴이 까맣게 되지만 예배를 보는 동안 어느 정도 벗겨지면 회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허영게 변하면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이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또 잠당이 얼굴을 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 마나가 되는 고로 매일 그걸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역사를 하는 주인공이 맥이 빠지게 되는 고로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지키고 이 사람 말씀대로 실천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2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p>신명나는 예배시간</p> <p>농군은 가을의 추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신명나게 농사 일을 농번기에 한다. 이렇듯 우리도 영생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시간에 찬송가를 신명나게 불러 보자</p> <p>엄마 엄마 아부엄마(阿父喃喃) 천하제일 우리 엄마 도유충장(道乳充腸) 이내몸이 엄마없이 어이살가 이렇듯 농공가와 성경 예배소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써 영생이로구나</p> <p>이처럼 상호 짝이 맞아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영생을 주는 격암유록상의 정도령이고 성경상의 이긴자를 예배시간에 열광적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신명나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처사이다</p> <p>그러하여 찬송가의 열정이 임계점을 넘어 검은 숲의 죄인에서 붉은 불덩어리의 의인으로 거듭나 보자 그 다음 전 인류에게 검은 숲이 붉은 불덩어리가 되게 불을 붙여 보자</p>	<p>이수봉 장로</p> 
---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는 그 자신이 임종하는 해에 요단 동편의 땅을 12지파 중에 오직 3지파에 해당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나머지 9지파의 기업 분배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후로 5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 민수기 34장
- 13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 14장: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 15장: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수아 14장
 3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

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으로,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스라엘이 아직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유다 자손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을 앞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람들과 갈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 갈렘은 ‘우리들이 곧 출발하여 그 땅을 점령해

《8장 여호수아》 3절: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

야 합니다. 올라가서 공격하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하고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렘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시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렘은 그니스 족속의 사람으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유산으로 받게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기업(땅)을 요구함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유다지파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기에 이렇게 나에게 물려온 것이요?”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렘이 비록 외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 유다지파와 피를 섞은 자입니다. 지금은 그가 명실공히 유다지파의 대표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갈렘에게 맹세하여 말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의 땅 가운데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기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아람)의 형제 예서의 핏줄을 이어받은 갈렘을 축복하고, 기랴트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니스 사람 갈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발미를 이용해서 유다지파의 사람들은 헤브론의 주변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해 서편에 속한 땅을 대부분 차지한 후,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의 맹세를 구실삼아 헤브론의 주변을 차지하게 되자, 이제 요셉지파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도 그들 나름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을 모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여 말씀하기를 ‘하나



제비를 뽑는 유다지파의 사람들

님께서 너희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인도해주시리라. 내가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네 형제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께서 우리 요셉지파의 사람들에게 세겜 땅과 그 주변을 기업으로 준다면, 이는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는 수 없이 요셉지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겜의 북쪽은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고 세겜의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하게끔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안젤라